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뿐입니다</b>
담당 부서 산업입지과	배포일자	2023년 4월 21일(금) 총 8매	
	담당자	• 스마트산단팀장      최덕중 ☎440-4286 • 담당자                변형우 ☎440-4288	
<b>사진(이미지)</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참고자료</b>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b>보 도 시 점</b>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 산업단지, ‘밤에도 빛나는 산업공간으로’ 재창조

- 인천시,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종합비전 발표 -
- 노후 산단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소비공간과 산업공간으로 대전환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1일 인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비전선포식’을 주안산업단지 내 강운공업(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전선포식에는 인천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조덕형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김재환 인천유망기업연합회장, 한상담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장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천 산업단지 가치 재창조를 통한 활성화 종합비전 및 핵심전략 발표,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대전환의 시작점을 알리는 세레모니,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공장 어워드 수상기업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의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며, 인천시민들의 일터로서 근로자의 땀과 노력이 쌓여있는 터전임과 동시에 인천 제조업 총 생산액의 65.8%, 고용의 61.1%를 담당하는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산업공동화, 기업 영세화에 따른 고용의 질 악화로 산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과 젊은 인력의 취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밀집지역 이미지를 벗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산업단지 고유의 자산과 가치를 활용해 산단을 보고, 즐기고,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은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노후 산업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인력의 근로여건 개선 및 대규모 주거공간과 인접한 산업단지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소비공간과 산업공간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밤에도 빛나는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산업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재창조 ▲근로자와 시민의 문화 콘텐츠 다양화 ▲산업혁신 문화활동 장소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인천기계, 인천지방, 뷰티폴파크 등 인천지

역 전체 산업단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첫 시작인 남동산업단지는 입지 경쟁력, 특화된 산업문화, 시민·근로자를 중심으로한 휴식·쇼핑·체험을 위한 공간(점)을 설정하고, 각각의 대상지를 길(선)로 연결해 최종에는 중심축(면)으로 확대하는 점·선·면 개념을 도입해 3개 축·5개 권역으로 중심축과 구역별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안산업단지는 핵심앵커시설인 한국폴리텍대학교를 거점으로 시민과 근로자, 청년이 주도하는 신성장산업 중심 산단으로 산업공간 가치를 재창조 할 계획이다. 부평산업단지는 청년융복합센터 등 앵커시설 구축을 통해 문화와 비즈니스가 함께하는 초일류 산업단지로 변화시킨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혁신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인천의 산업단지가 물리적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 청년, 우리 시민 모두와 기업이 공존할 수 있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가 개최된 강운공업(주)은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해 산업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자발적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선도기업으로 「2022년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문화경영’ 부문에 선정된 기업이다.

## 사진1

## 비전선포식





## 참고1

## 산업단지 「산업공간 가치 재창조」 비전 및 전략

밤에도 빛나는,

초일류 산업공간으로

### 사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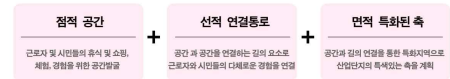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 근로환경 개선,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기반 리스어링 정책을 통해 산업단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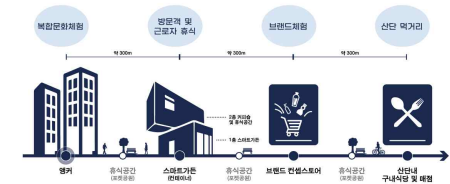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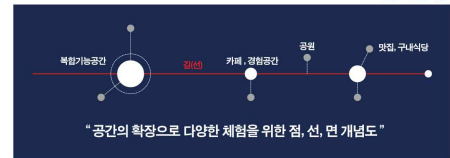
노후 산업단지에 혁신역량을 재건, 산업단지 르네상스를 통해 인천의 새로운 경제 부흥 신화를 꿈꾼다.  
"인천 산업공간 르네상스(인쇼어링 : Incheon-resourcing)"

### 사업내용

-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문화예술과 결합하여 산업화 할 수 있는 기반을 활용한 공간 확장  
- 공간의 확장으로 다양한 체험을 위한 점, 선, 면 전략 수립



복합문화충돌원인 축(선)



### 공간전략 (Spatial Strategy)

문화 - 예술 - 산업 융복합 대표 거점공간  
정주여건 개선 및 주야간 활성화 확산

근로자 문화 활동 개선 및 연결성 강화

문화 체험, 쇼핑, 관광, 소비 연결성 구축  
거점 축별 확산 강화

청년 스마트 융합 창업 플랫폼 구축  
하이브리드 중심 창업공간 지원

산업단지 테스트베드 및 산업단지 진화  
빅데이터 산단 대장경(大藏經) 확산







## 참고2

## 강운공업(주) 기업현황

기 업 명	강운공업(주)	수상개요	2022년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문화경영부문)
설립일자	1992. 05.15.	대 표 자	김춘식
매 출	92억원	종업원수	30명
주 소	(221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염로73번길17(주안동)		
주요생산품	방산분야 장비 및 소화기 산업관련 제조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방산분야의 안정적인 매출 및 소화기 산업으로 사업 확장</li> <li>- 좋은 위치의 공간을 근로자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테라스 및 마당 등 공간을 여유롭게 설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li> <li>- 정기적인 사내 음악회, 전시회 및 체육경기 관람지원 등으로 근로자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며, 대학교 장학금 지원 등 사내 복지가 우수함.</li> </ul>		

### 회사전경 및 전시실, 체육시설 등

